

쓰레기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쓰레기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결국 인간이다. 인간에서 비롯되어 인간으로 돌아간다. 플라스틱을 예로 들어 보자.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은 히말라야산맥, 아이슬란드 빙하, 하와이 해변, 아마존강변 등 지구촌 그 어디에나 있다. 이 물을 따라 흘러 흘러 결국 바다에 이른다.

그러나 바다가 종착역은 아니다. 플라스틱은 결코 썩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잘게 쪼개질 뿐이다. 이렇게 바다에 이른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다 인간의 식탁에 오르기도 한다. 인간에서 시작돼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햄지박이나 큰 대야를 뜻하는 '다라이(たらい)'라는 말이 있다. 우리 옛 고어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은 일본말이다. 주로 김장철에 많은 주부들이 사용했던 다라이는, 어렸을 적 인생 최초의 개인 목욕탕이기도 했다. 바로 이 다라이도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들어졌다.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편리함을 주었지만 아주 골치 아픈 존재이기도 하다. 한 해 동안 생산된 플라스틱은 83억 톤에 달하고 이중 쓰레기는 63억 톤이나 된다. 재활용되는 것은 약 10% 남짓에 불과하다. 8억 톤 정도는 소각되고 49억 톤이 땅에 매립된다. 매년 우리는 쓰레기 산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위성사진 속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섬 하나가 난데없이 나타나 세계가 경악하는 일이 있었다. 알고 보니 세계 도처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매일 일본과 하와이 사이에 있는 태평양에 쌓여 섬이 된 것이다. 그 쓰레기 섬의 크기는 프랑스 국토의 세 배, 우리나라의 14배나 됐다. 연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양이 적게는 800만 톤, 많을 땐 1300만 톤이 아니냐 충분히 그럴 만하다.

바퀴벌레가 인류의 희망이라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24시간 배달 문화라고 한다. 더욱이 최근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배달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을 비롯한 합성수지 계열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하루 평균 폐기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4%나 증가했다고 한다. 과연 '배달의 민족'이다. 24시간 배달 체계는 다른 말로 하면 24시간 쓰레기 생산 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배달 경

제의 확대는 기존 상품을 포장한 상태에서 택배 포장을 겹으로 해어만 하니 스티로폼·플라스틱·비닐류 등 막대한 쓰레기를 추가로 만들어 낸다.

지구촌 곳곳을 발로 누빈 어느 '별난 사람'이 직접 보고 듣고 깨달은 쓰레기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다. 제목은 '쓰레기책'이다.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란 부제를 달았다. 저자는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이렇게 묻는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가 잘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분리수거된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어지는 그의 경고가 날카롭다.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여러 나라의 쓰레기 처리 대응책들이 흥미롭게 기술되어 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 시행 중인 '바퀴벌레 호텔'이다.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는 음식물 처리장이 하나 있다. 한데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획기적이다. 바퀴벌레 40억 마리에게 최고급 숙식을 제공하며 음식물 처리를 맡긴 것이다."

저자의 설명을 더 들어본다. "바퀴벌레들은 안락한 공간에서 하루 2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 치운다. 최대 11개월까지 사는 바퀴벌레는 중국인들이 먹고 남은 산해진미를 모두 맛보는 삶을 사는 셈이다.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킨 곳은 쿼오빈 농업과학기술회사다. 세계적으로

끌머리를 알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한 획을 그은 것이다." 자, 이쯤 되면 저 징그러운 바퀴벌레가 인류의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 놀라지 않는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제시한 또 다른 책이 있다. 지난해 말 출간된 '쓰레기, 어디까지 고민해 봤니?'다. 광주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광주형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부 모임'을 만들어 함께 학습하면서 내놓은 결과물이다. 이 책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든 과정을 알려 준다.

종량제봉투도 폐지하자고?

또한 오늘날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역시 빼놓지 않았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정부와 기업을 질타하는 대목이다. "쓰레기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된 것은 각국 정부가 시민들에게는 재활용의 의무를 강요하면서, 기업들에게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온갖 난해성 플라스틱 포장재와 용기류를 생산토록 허가해 준 결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포장재와 용기류 통일화 사업과 생산자 재활용책임제(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그리고 3R(Reduce, Reuse, Recycle) 정책의 확대가 해답이다.

종량제봉투도 폐지해야 한다. 봉투 자체가 분해되지 못하는 플라스틱 비닐인 데다 지금은 새로

운 쓰레기 양산의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 성공적인 생활폐기물 정책으로 각광받았던 종량제봉투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종량제봉투 폐지의 대안은 '중량제'다.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무게를 달아 중량에 따라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회용품 사용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제는 매립이나 소각 이전에 최대한 재활용하고,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됐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배우 조승우가 텔레비전에 나와 늘 이렇게 말하지 않던가.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올라가자! 흠뻑을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흠뻑을 치자? 쳐야지!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야지!" 이제 최소한 빈 병에 담배꽂초를 집어넣는 그런 몰상식한 짓거리만이라도 하지 않기를!

<이 칼럼은 이동학이 쓴 '쓰레기책'과 김강열(광주환경공단이사장)과 몇몇 사람이 같이 쓴 '쓰레기, 어디까지 고민해 봤니?' 등 두 권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음을 밝혀 둡니다.>

영암 관음사 관련 코로나 확진자 잇따라 발생... 일주일새 38명

광주 누적확진자 1466명...효정요양병원 확진 환자 1명 숨져
광주보훈병원, 30명상 코로나 전담 전환...2월부터 환자 수용

광주·전남에서 영암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이날 3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돼 광주 총 누적 확진자는 1466명으로 늘었다. 이 중 광주 1464는 영암 관음사 관련이며, 1466은 중앙병원 관련이다. 1465는 해외유입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7시경 효정요양병원 입원 환자(50대·광주 1455번)가 숨졌다. 이 환자는 각종 기저질환이 있으며 2016년부터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다. 이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3일마다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관련 광주 사망자는 현재까지 15명이다. 효정요양병원 관련은 5명(누적 확진자 153명)이다.

전남에서는 19일 9명, 20일 6명 이틀 새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부여된 환자 번호는 전남 670-684번으로 모두 지역감염 사례다.

영암 7명, 순천 5명, 목포 1명, 나주 1명, 화순 1명으로 영암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영암에서는 지난 14일부터 관음사 스님·신도 3명을 시작으로 마

을 주민, 고구마 농장, 어린이집 등에서 33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강진 3명, 나주 1명, 목포 1명 등 N차 감염으로 이어져 사찰발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 38명까지 불어났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다녀간 관음사면사무소, 어린이집, 식당 등 공공시설 등 다중시설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20일 영암군 재난상황실을 방문,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해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전파 차단에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전남도는 영암 독전 5일 시장에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버스와 확산 우시장 등에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 등 총 4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순천에서는 이날 오후에만 3명(682-684번)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들은 가족 관계다. 지난 16-17일 순천을 다녀간 경기 시흥 562번과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은 이



20일 오후 광주시 북구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날 광주지역 내 코로나 19 추가 확산에 대비해 격리 병동 30병상을 확보해 2월부터 감염 환자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광주보훈병원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대본)의 병상 확보 요청에 따라 병동을 확보하고, 음압 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감염병 격리병상으로 전

환을 준비하고 있다. 공단 소속 전국 보훈병원 중에서는 대구, 대전, 중앙에 이어 네 번째다. 광주보훈병원은 기존 의료 인력을 활용해 감염 환자를 수용하고, 추후 입원환자 수, 의료진 수급 등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동 병상을 조정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가전 공동 브랜드



광주지역 가전 공동 브랜드가 '지엘(GIEL)'로 결정됐다.

20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지엘(GIEL)은 'Gwangju(광주)+Intelligent(지능)+Electronics(전자)'의 조합으로 광주가 생산하는 지능형 가전브랜드, 광주가 보증하는 스마트 가전을 의미한다. 광주의 영문 첫 글자인 G를 디자인화한 상징물도 나왔다.

광주시는 현재 사용 중인 공동 브랜드 'CITY OF PEACE'는 연상과 기억이 불편해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새로운 명칭을 만들었다. 공모를 통해 제시된 500여개 후보 중 10개를 선정하고 시민, 디자인 전공 학생, 기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해 브랜드를 확정했다. 광주시는 상표 등록 절차를 밟고 활용 매뉴얼 등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동 브랜드에 참여하는 기업(제품)은 주 식회사 인어의 해동 레인지, 디케이의 공기청정기 등 24개 사, 39개 제품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용도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레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마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천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우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 장 비 용 없 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자본감소공고

2021년 1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 자본의 총액 1,200,000,000 원 중 금 300,000,000원으로 감소할 것을 결정하였음.
위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출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응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21일
주식회사 우진건설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58(상동)
대표이사 박성국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배대군(840322-XXXXXX)
• 최후주소 : 순천시 해룡면 기척의도서관길 95 102동 606호(우미아파트)
피상속인 망 배대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년단656호로 신청하여 2021년 1월 1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와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월 21일
• 상속인 : 1. 배성봉(600526-XXXXXX) 순천시 해룡면 기척의도서관길 95 102동 606호(우미아파트)
2. 유영자(640123-XXXXXX) 광양시 봉강면 지실길 80-23
• 신고기간 : 2021. 1. 21 ~ 2021. 4. 1.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배성봉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산행안내

1월 24일(일)
▲광주서산악회 1월 24일(일) 단신
과함께하고싶은!북대륙산 향적

봉 뿔산행, 염주체육관 07:30, 동아병원앞 07:35, 툄대백화점 07:40, 광주역 07:45, 문예후문 08:00, 비엔날레주차장 08:05 * 다음카페 광주서산악회 ☎ 010 7794 6920